

## 돈바이 담

돈바이 담은 아리타 마을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, 그중에서도 길이가 가장 길고 양호한 보존 상태를 자랑하는 담장은 우치야마 지구의 뒷골목에서 볼 수 있습니다. 돈바이(어원불명)는 안에 방이 있는 전통적인 노보리가마(산비탈에 세워진 대규모 가마)를 만드는 데 사용된 내화 벽돌을 말합니다. 노보리가마는 에도 시대(1603~1868)에 아리타 지역에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. 가마 불의 열기로 구조가 무너지기 때문에 자주 새로 만들거나 수리해야 했습니다. 구조적으로 훼손된 벽돌은 새로운 가마에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도공의 자택과 공방을 둘러싼 담장을 만드는 데 재이용되었습니다.

돈바이 담의 대부분은 재이용된 벽돌이 보이지 않도록 벽토와 회반죽으로 덮여 있습니다. 또한 그 위쪽은 비를 막기 위해 지붕 기와로 덮여 있습니다.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반죽은 비에 침식되고 벽토는 벗겨지면서 그 아래의 적토와 돈바이가 드러났습니다. 그러나 최근에는 아리타 지역에서 지금까지 도자기가 재이용되었던 점을 어필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돈바이를 숨기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게 되었습니다. 노출된 담장에서는 도자기 조각과 오래된 가마 도구도 볼 수 있습니다.

이전에는 담장의 길이가 수 킬로미터에 걸쳐 있었지만, 현재는 일부 지구에만 남아 있습니다. 자기 생산 기술이 발달하면서 노보리가마는 더 이상 널리 사용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돈바이 담에 사용하는 벽돌도 나오지 않게 되어 새로운 담장을 만드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. 아리타초에서는 돈바이 담이 손상되면 폐품과 전통적인 벽돌 쌓기 기술을 사용해 재건하고 있습니다.